

국화 주요해충 발생 및 종합관리

박종대, 김선곤, 김도익

전남농업기술원 해충연구실

국화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의 발생과 피해 및 방제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화에 발생하는 해충종류로는 10과 16종이 조사되었는데 점박이용애, 꽃노랑총채벌레, 목화진딧물, 아메리카잎굴파리, 담배거세미나방 등의 발생이 많았다.

점박이용애는 5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중순에 peak를 이루었으며 이후 밀도가 떨어졌는데 가을재배인 9월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꽃노랑총채벌레는 6월 중순에 peak를 이루었고 가을에는 9월중순부터 10월 상순에 발생량이 많았으나 봄재배 보다는 많지 않았다.

진딧물은 5월 상순에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는 점차 감소하였고,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인된 층이 거의 없었고 가을재배는 9월 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신초당 11마리까지 증가하였다.

온실가루이는 5월상순부터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되기 시작하였으나 재배기간동안 밀도는 극히 낮았다.

아메리카잎굴파리 성충과 유충은 정식 5주째부터 발생되어 6월 상순에 peak를 이루었으며 이후 밀도가 감소하였다. 가을재배에서는 정식직후부터 발생하였으나 봄재배보다는 발생량이 적었다.

나방류 중에는 봄재배에는 파밤나방과 우영몽뚱날개나방의 피해가 많았으며 가을재배에서는 담배거세미나방의 피해와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담배거세미나방은 9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점박이용애(*Tetanychus urticae*)와 긴털이리응애(*Amblyseius womersleyi*)에 대한 NeemAzal-T/S의 농도별 독성에서 성충 살비율은 100ppm에서 각각 97.7%, 20.0%로 나타났다. 점박이용애의 산란수는 100ppm에서 0.0개, 무처리 18.5개 였으며 긴털이리응애는 100ppm과 무처리에서 각각 1.6개, 2.9개였다. 부화율은 50ppm에서 점박이용애 52.8%, 긴털이리응애는 100%였으며, 100ppm에서 각각 2.5%, 91.3%로 점박이용애가 긴털이리응애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바이러스와 NeemAzal-T/Sdml 혼합효과는 바이러스 1×10^4 PIBs/ml 단독 처리는 LT_{50} 7.35일, LT_{95} 는 17.7일이 걸리는 반면 NeemAzal과 혼합할 경우는 200ppm의 경우 3.19일과 10.28일로 살충기간이 단축되었고, 바이러스 1×10^6 PIBs/ml과 NeemAzal의 혼합에서도 바이러스 단독처리에서는 LT_{50} 5.81일, LT_{95} 는 12.51로 1×10^4 PIBs/ml보다는 살충기간이 약간 짧아졌지만 NeemAzal과 혼합할 경우는 200ppm의 경우 2.1일과 8.47일로 살충기간이 더 단축되었다.